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1.(목) 11:00 < 1.12.(금) 조간 > 배포 2024. 1. 11.(목)

2024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 열려

-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리아 원팀 결의 다져
- 2월 중 “(가칭) K-조선 차세대 주도권(이니셔티브) 토론회(포럼)” 발족 계획

2024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 신창호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등을 비롯한 조선해양 분야 산·학·연 10여 개 기관*, 1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 11(목) 16:00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23년 우리 조선산업이 13년 만에 수주잔량 최고치(3,930CGT)를 경신하며 4년 치 일감을 확보하였고, 질적으로도 고부가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로 시장을 선도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선박 교체수요와 친환경선 발주세가 올해에도 지속하면서 시장 호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의 80%를 수주하고, 메탄올·암모니아 등 수주 선종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조선산업의 질적 성장 흐름세가 확고해졌다고 평가하면서, ‘24년이 우리 조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질을 개선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탄소감축 미래 초격차 기술력 확보, 조선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등 차세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7,1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올해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3.8% 증가한 1,185억 원의 예산을 확보, 미래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2월 중 조선 분야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K-조선 차세대 주도권(이니셔티브) 토론회(포럼)”를 최초로 발족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대형 3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 기자재사 등이 원팀으로 인력 부족, 기술개발, 상생 협력 등 업계 공통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K-조선 초격차 기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올해 중 「(가칭)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염현호 (044-203-4332)

新성장 4.0 상상을 현실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